“대행 선사 가르침 따르겠습니다”

10월 18일, 한마음선원 안양본원
제23회 전국연합청년법회 봉행
회원, 법사 스님 등 500명 참여

신중일 기자 motp79@hyunbul.com



한마음선원은 10월 18일 전국 청년회 법사와 회원 5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23회 전국연합청년법회를 봉행했다. 사진은 법회 직후 진행된 기념촬영 모습.

전국 한마음선원 청년 불자들이 한 자리에 모여 한마음 주인공 관법으로 생활 속 마음수행의 가르침을 전한 선지식 묘공당 대행 선사(1927~2012)의 가르침을 선양할 것을 다짐했다.

한마음선원(이사장 혜수 스님)은 10월 18일 한마음선원 안양본원서 ‘제23회 전국연합청년법회’를 봉행했다. 이날 법회에는 안양본원을 비롯해 부산과 대구, 울산, 광주 등 전국 15개 지원에서 청년회 법사 스님과 회원 500여 명이 참석했다.

법회에서는 중부경남지원 청년회원들의 헌다·헌화를 했다. 이어 전국 청년회원들이 내년 대행 선사 탄신 100주년 전시회의 원만회향을 위해 모은 정성금을 나태희 본원 청년회장이 청년회를 대표해 부처님 전에 올렸다.

이날 법회에서는 대행 선사가 1993년 10월 31일 제3회 전국연합청년법회에서 청년 불자들에게 당부한 법문이 영상으로 상영됐다.

대행 선사는 “과거에 지은 선업과 악업이 현재에 나타나 자기 마음을 마음대로 하지 못하게 된다”면서 “어떠한 의식 속에서 나온다 하더라도 거기에 속지 말고 다 그 자리에 내놔라”고 당부했다.

“내려놓는 것만으로 끝나서는 안 된다”고 분명히 한 대행 선사는 “나쁜 의미가 담긴 것은 그 자리에 놓고, 신선한 물로 쓰듯이 잘 돌려놓으라”고 당부하며 마음은 ‘생산처’인 만큼 선업을 쌓을 수 있도록 다스려야 함을 강조했다.

청년회원을 대표해 김시영 통영지원 청년회원은 대행 선사께 올리는 마음의 글을 낭독했다. 김시영 청년회원은 “제가 지금까지 마음공부를 하면서 느낀 점은 마음공부를 통해 더 나은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어 감사하다는 것”이라며 “모든 것을 주인공에 맡겨 놓고 주인공을 지극히 믿으며 살아가면 정말 모든 일이 잘 굴러간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고 밝혔다. 이어 “마음공부를 통해 주인공을, 내 근본 불성을, 참나를 믿으며 살아갈 수 있게 가르침을 주신 대행 선사께 감사 인사 올린다”면서 “항시 남과 나를 둘로 보지 않고, 주인공과 나를 둘로 보지 않고, 전체가 한마음으로 돌아간다는 것을 잊지 않겠다. 한마음으로 연결된 모두를 위해 마음을 내면서 열심히 정진하겠다”고 다짐했다.

이사장 혜수 스님은 인사말을 통해 “1993년 당시 법회 영상 속 청년들의 질문이 오늘날 청년들도 공감하는 의문과 고민”이라며 “주인공을 온전히 믿지 못해 자신이 잘하고 있는지 의문이 드는 것 역시 공부 과정에서 겪는 일”이라고 전했다. 이어 “마음공부가 뜻대로 되지 않더라도 물러서지 않고 꾸준히 실천하라”고 당부하며 “실천을 거듭하면 내면의 갈증도 채워진다”고 강조했다.

청년회원들이 대행 선사 탄신 100주년 전시회에 정성금을 올린 것에 대해 혜수 스님은 “우리 청년들이 해마다 이렇게 함께 성장해나가고 있다”면서 “이런 청년들이 어디 있겠는가. 청년 불자들이 너무 자랑스럽다”고 감사 인사를 전했다.

오전 법회 이후 청년회원들은 4층 법당에서 담선법회를 이어갔다. 연합법회에 앞서 전국 청년회원들은 1주일 동안 온라인 줌(ZOOM)을 통해 정진해 왔다.

월정사 천도재, 살아 있는 이들의 치유까지 발원

‘영가천혼수륙무차대법회’
11월 14일, 경내 특설무대서



금강경봉찬기도회장 자현 스님(왼쪽)과 기도신행국장 승우 스님.

조상과 영가, 반려동물의 극락왕생을 발원하고 마음의 병으로 고통받는 이들의 정신적 안정을 기원하는 법회가 월정사에서 열린다.

오대산 월정사 금강경봉찬기도회(회장 자현 스님)는 11월 14일 오후 1시 경내 적광전 앞 특설무대에서 ‘금강경봉찬기도 영가천혼수륙무차대법회’를 봉행한다. 이날 법석은 3000개의 지화로 장엄되며 사부대중 2500여 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이번 법회는 ‘모든 이가 화락하고 행복하게 세상이 맑아지고 국가가 화평해지게 가족은 위로와 위안을 망자는 극락왕생을’을 기치로 연다. 법회에서는 선망조상·자매·친척·친구를 비롯해 뱃속에서 횡사한 수자령, 반려동물, 자살자·사고사·재난사 등으로 세상을 떠난 영가들의 극락왕생을 발원한다. 특히 올해부터는 정신질환과 우울증, 공황장애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살아 있는 이들까지 기도 대상에 포함해 정신적 안정과 치유를 기원한다.

월정사 금강경봉찬기도회장 자현 스님은 10월 19일 서울 불교문화원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기도 접수자가 전국에 1만2000가구가 넘는 가운데, 천도 대상 영가의 가족이나 본인 중 정신적 어려움을 겪는 이들이 많다”며 “과학적 치료에도 불구하고 회복되지 않는 이들까지 정신적 안정을 위한 기도의 범위를 넓히고 싶었다”고 말했다.

자현 스님은 “특히 가족의 죽음과 코로나19 팬데믹, 사고 후유증, 고령화에 따른 여생의 고독감과 불안감 등 정신 질병이 조속히 회복되지 않으면 본인의 생을 단절할 위기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면서 “이를 미연에 방지하고 스트레스, 트라우마, 심리적 부담을 안은 이들에게 위로와 안정을 기원하고자 했다”고 기도 대상 확대 이유를 밝혔다.

이번 법회에서는 법고, 범종오타, 시현, 재대령, 관욕 등의 불보살 및 영가를 기리는 사부대중 스님들의 의식을 시작으로 상단예불, 혜안 스님의 축원, 회주 정념 스님의 법문, 회심곡, 관음시식, 호마의식 등이 진행된다. 끝으로 계첩과 영가의 이름을 적은 호마목, 향·지화·쌀 등의 공양물들을 태우는 소대의식과 함께 법성게를 독송하며 법회를 회향한다.

상단예불에서는 올해부터 월정사 주지 인광 스님 외 법회 동참 스님들이 천도재에 동참하는 복위자들에게 영가를 대신해 불연을 맺게 해주는 연비 의식도 봉행한다. 기도신행국장 승우 스님은 “생에 불연을 맺지 못한 모든 영가들이 청정한 개체로 거듭날 수 있도록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033-339-6791 박지운 기자



화성 신흥사, 동국대 한방병원에 2000만원

화성 신흥사 회주 성일 스님과 주지 선관 스님이 10월 15일 동국대학교일산한방병원(병원장 김동일) 발전을 염원하며 2000만원을 기부했다. 두 스님은 동국대학교일산한방병원이 자비의료를 실천하고 생명 존중의 가치를 전하는 의료포교도량으로 성장하기를 발원했다. 또 아픈 이들의 몸과 마음을 치유하고, 의료 현장에서 부처님의 자비를 실천하는 병원으로 발전하기를 바라는 뜻을 전했다. 임은호 기자



통일 글짓기 공모전 수상 축하합니다

조계종 민족공동체추진본부(본부장 성행 스님)는 10월 19일 서울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4층 접견실에서 ‘불교 평화통일 글짓기 공모전’ 시상식을 개최했다. 용성조사 대원 명법사 실천회(이사장 화정 스님)가 후원한 이번 공모전에는 총 324편이 출품됐다. 2차 심사를 거쳐 최종 54편의 수상작을 확정했다. 대상에는 송다영의 ‘그냥은 안 돼요?’와 조희원의 ‘고추잠자리의 약속’이 선정됐다. 이현희 기자

캄보디아 아동센터 20주년…후원 잇따라

법장사, 취약계층에 1000만원
통해사·나누며하나되기 생필품



불교계 국제개발협력 NGO 로터스월드(이사장 성관 스님)가 캄보디아 아동센터 설립 20주년을 앞둔 가운데 사찰과 NGO 단체 등 각계 후원이 이어지고 있다. 캄보디아 아동들의 교육과 복지를 위해 이어온 20년의 발걸음을 축하하며 현지 주민과 아동을 위한 나눔의 손길을 건네고 있다.

서울 법장사(주지 퇴휴 스님)는 10월 15일 ‘캄보디아 취약계층 교육 지원 기금’ 1000만원을 전달했다.〈사진〉 서울 통해사(주지 만소 스님)는 9월 11일 수건, 칫솔, 치약, 비누 등 세면도구 300세트를 지원하며 아동과 주민들의 위생과 생활 여건 개선에 힘을 보탰다.

단체들의 물품 후원도 이어졌다. 천태종 NGO 나누며하나되기(이사장 진철 스님)는 10월 16일 파스, 라텍스장갑 등 생필품 약 31박스를 후원했다. 이와 함께 국제개발협력 NGO 지파운데이션이 10월 15일 아동도서와 아동복, 여성의류 등 1000여 개를, 순천비전라이온스클럽도 9월 29일과 10월 14일 2차에 걸쳐 아동복을 비롯한 의류 1500여 개를 보태며 나눔에 동참했다.

물품은 로터스월드가 신축을 지원한 초등학교 학생들과 로터스월드 결연 아동에 우선 전달된다.

로터스월드 아동센터 설립 20주년 기념식은 11월 28일 캄보디아 시엠립 현지에서 개최된다. 이날 아동센터 법당 마하사와 아동센터 운동장 중앙에 모신 부처님 개금불사 회향식도 진행된다. 동참한 이들의 공덕을 기리기 위해 이름을 석재 명판에 새겨 부처님 좌대 하단에 봉안할 예정이다. 개금불사 동참 후원은 11월 25일까지 할 수 있다. 02-725-4277

후원 계좌 : 기업은행 024-071023-01-024 로터스월드

이현희 기자

기자칼럼

사찰 결혼식, 청년 포교의 새 길

지난 9월 21일, 영광 불갑사에서 세 커플이 가족과 관광객들의 축복 속에 특별한 결혼식을 올렸다. 불갑사와 한국수력원자력이 여러 이유로 결혼식을 올리지 못했거나 특별한 예식을 희망하는 이들에게 소중한 추억을 선물하기 위해 마련한 ‘동행 웨딩’이었다.

한복을 곱게 차려입은 중년의 부부를 보며 문득 생각했다. 사찰이 예비부부들에게도 결혼식 장소로 문을 연다면 어떨까. 인생의 새로운 출발을 앞둔 이들에게 의미 있는 선택지가 될 수 있지 않을까.

교회와 성당이 종교적 의미를 넘어 결혼식 장소로도 활용되듯, 사찰 역시 예비부부들이 자연스럽게 고려하는 예식 공간이 될 수 있다. 자연과 어우러진 산사의 풍경부터 도심 속 전통 건축이 선사하는 고즈넉한 분위기까지, 사찰은 예식장에서 쉽게 경험하기 어려운 고유한 매력을 지니고 있다. 형식보다 의미를 중시하는 이들에게 매력적인 대안이 될 수 있다.

최근 사찰에서 시작된 인연이 결혼으로 이어지는 사례가 늘고 있다. 지난해 ‘나는 절로, 쌍계사’편에서 만난 커플이 올해 결혼식을 앞두고 10월 19일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을 예방해 감사 인사를 전했다. 조계종사회복지재단이 2024년부터 진행하고 있는 만남 템플스테이 ‘나는 절로’를 통해 결혼에 이른 커플은 5쌍, 결혼을 앞둔 커플은 7쌍에 이른다. 사찰에서의 만남이 삶의 동반자를 만나는 인연으로 이어지는 것이다.

이제 한 걸음 더 나아갈 때다. 사찰에서 인연을 맺는 데 그치지 않고 결혼식까지 올릴 수 있도록 한다면, 불교가 청년들의 삶에 더욱 가까이 다가가는 계기가 될 수 있다. 결혼식을 올린 부부가 자녀와 함께 사찰을 다시 찾을 수도 있고, 예식에 참석한 하객들이 사찰을 새롭게 경험하며 불교에 관심을 가질 수도 있다. 한 번의 결혼식이 색다른 방문과 만남으로 이어지고, 그 인연이 새로운 세대로 이어질 가능성도 열리는 셈이다.

청년 포교는 청년들에게 불교를 알리는 것만으로 완성되지 않는다. 청년들의 삶에 필요한 도움을 건네고, 인생의 중요한 순간을 함께할 때 불교의 자비는 구체적인 실천으로 다가갈 수 있다.

이를 위해서는 사찰 결혼식이 하나의 예식 문화로 자리 잡도록 세심한 기획과 실질적인 운영 방안이 마련돼야 할 것이다.

기도와 수행 공간을 넘어 삶에 의미 있는 공간으로 사찰이 청년 삶에 한 걸음 더 가까이 다가서고, 그 인연이 다시 불교를 찾는 발걸음으로 이어지기를 기대해 본다.



박지운 편집국 기자

‘나는 절로’ 결혼 커플…“스님 응원 덕분”

10월 19일, 진우 스님 예방
불교사회복지발전기금 전달



조계종사회복지재단의 청춘남녀 만남 프로그램 ‘나는 절로’에서 인연을 맺은 커플이 결혼을 앞두고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에게 감사 인사를 전했다.

한동희·이은주 씨는 10월 19일 서울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4층 접견실에서 진우 스님을 예방했다.

10월 24일 결혼을 앞둔 두 사람은 지난해 4월 ‘나는 절로, 쌍계사’ 편에서 처음 만났다. 진우 스님은 당시 프로그램에 참석해 참가자들에게 응원과 격려를 보냈다. 그 인연을 잊지 않은 두 사람은 진우 스님을 다시 찾아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진우 스님은 두 사람의 결혼을 축하하며 한동희 씨에게 ‘선우(善友)’, 이은주 씨에게 ‘혜연(慧連)’이라는 법명을 내렸다. 스님은 “선이 세상에 퍼져 괴로움이 사라진 극락정토에서 함께 살아가길 바란다”며 ‘혜연’에 대해서는 “지혜를 잘 갖춰 두 사람의 인연도 계속해서 이어지길 바란다”고 설명했다.

두 사람은 ‘불교사회복지발전기금’ 100만원도 전달하며 인연에 대한 감사함을 사회 나눔으로 회향했다.

이현희 기자

프랑스 입양인들, 템플스테이 경험

불교문화사업단, 10월 6~12일
한·불 수교 140주년 팸투어



한국계 프랑스 입양인들이 템플스테이와 사찰음식 체험을 통해 한국의 전통문화와 불교문화를 경험하고 고국과의 인연을 되새겼다.

한국불교문화사업단(단장 일화 스님)은 한·불 수교 140주년을 맞아 10월 6~12일 한국계 프랑스 입양인 11명을 초청해 ‘2026 한국계 프랑스 입양인 초청 템플스테이 팸투어’를 진행했다.

이번 팸투어는 문화사업단이 기획하고 보건복지부 산하 국가아동권리보장원과 협력해 마련했다. 참가자들이 템플스테이와 사찰음식 등 한국의 전통문화를 체험하며 자신의 뿌리를 돌아보고, 한국문화에 대한 이해와 고국과의 유대감을 넓히도록 하는 데 목적을 뒀다.

참가자들은 10월 6일 서울 조계사 탐방과 환영만찬을 시작으로 7일에는 서울 한국사찰음식문화체험관에서 하경 스님과 함께 전통 오란다 만들기와 명상을 체험했다.

이어 8~9일에는 부산 범어사에서 1박 2일간 템플스테이를 체험했다.〈사진〉 숲길 걷기와 저녁예불, 선명상 등을 통해 한국불교의 수행문화를 경험했으며 범어사 사찰음식체험관에서는 도림 스님과 함께 사찰식 김치를 만들며 사찰음식에 담긴 전통과 가치를 배웠다.

임은호 기자